



대체농지조성비 부과에 대한 질의 대체농지조성비 감면토록

본회는 양계농가가 농지전용후 농지의 잔여소유면적이 1,000m²가 되지 않는 경우 대체농지 조성비(전용부담금 포함)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이 선처해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했다.

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의 농가에 해당하는 양계농가가 신고 또는 허가에 의거 양계장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을 한후 잔여농지소유면적이 1,000m² 미만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농가로 적용을 받아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감면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견해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현행법의 해석상 농지전용후 잔여농지 소유면적이 1,000m² 미만인자는 농가로 인정할 수 없어 대체농지 조성비(전용

부담금 포함)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러한 경우도 농가로 인정을 받아 대체농지 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종계수입추천 계획량에 대한 의견 수입 추천 계획량 동결토록

본회는 농림수산부 27427-89('92. 3.12) 호와 관련하여 '92년 8월 1일 현재 수입추천할 수 있는 물량이 5,049수 밖에 남지 않아 혼선의 우려가 있으나 과도한 종계입식으로 불황이 예고되고 있어 종계분과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앞으로 수입추천 계획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잔여량의 한도내에서 종계장간의 물량을 자체조정하여 수입해야할 최소한의 물량만 수입토록 조치하여도 될 것으로 보고 신청계획 및 조정량을 각 업체간의 협의하에 수입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축산경영진단 사업 착수 '92년 3/4분기 2백30만원 지원확정

본회는 '92축산발전 사업계획과 실시요령에 의거 본회가 제출한 자금계획에 따라 1차로 3/4분기 경영진단 사업비를 2백3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축산경영진단 사업에 착수했다.

대상농가는 육계 15농가, 산란계 15농가로 사업기간은 '92년 7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92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농가 추천 위원회 구성

경기도는 축산 23400-681('92. 5.13)호와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92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키위해 추천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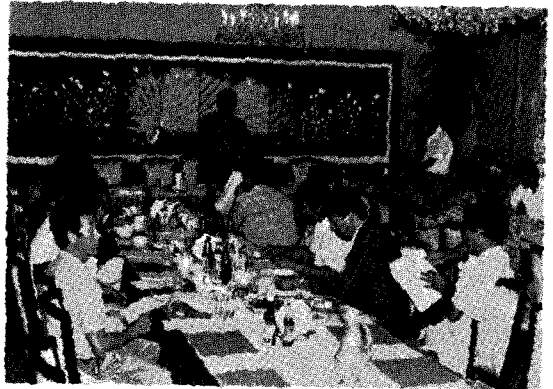
구분	계	위원장	당 연 추 천		축협도지회장추천		도지사추천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농가대표	농가대표	농촌진흥원
제한계	6	축 협	서울경기양계	대한양계협	용인군	과주군	소독지도
			도지회장	조합장	부회장		과 장
			안재기	장희구	최준구	임진관	임용택
육계	6	축 협	서울경기양계	대한양계협	화성군	김포군	소독지도
			도지회장	조합장	부회장		과 장
			안재기	장희구	강석부	김준혁	이영주

산란용 병아리생산(판매)수수 및 가격 조사 협조 요청 상반기 실적을 9월 5일까지 본회에 통보토록

본회는 산란용 병아리 생산(판매)수수 및 가격조사를 하는데 있어 종전 6개농장(천호, 한일, 고창, 중원, 복지)의 실적만으로는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에 어려운 점이 많아 앞으로는 대다수 농장의 실적을 파악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생산조절에 지표를 제시하여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의 실적을 본회에 통보하도록 각 농장에 협조를 요청했다.

9월 5일까지 통보를 받게되는 이번 조사의 통계자료는 총계수치만 공표하고 농장별 내역은 공표치 않을 예정이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전국 육계인대회 개최키로



8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14일 천안에 있는 스몰씨터 레스토랑에서 개최됐다.

말복을 기점으로 kg당 900~1,000원선을 유지하며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예고될 불황에 대비해 입추에 신중을 기하고 부화장으로 하여금 생산조절을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벌어진 전문위원회에서는 불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육계인의 단합된 힘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 9, 10일 양일간에 걸쳐 속리산에 위치한 유스타운에서 개최할 것을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입식증가로 불황예고

8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제식)가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란용은 전년대비 50%의 입식증가와 육용병아리는 생산잠재력이 10월이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종계·부화경기가 어려워질 것을 예고했다.

최근 육계가격이 낮아 산란노계 출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계란가격 상승시기인 요즘 더욱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육계 및 병아리 가격 시세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소개업자(유통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추석이후 생산조절이 중요

8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4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금후 계란값의 급상승 원인으로는 추석대비 상인들의 물량확보, 휴가가 끝나면서 특란소비의 증가, 기온하강으로 인한 제빵원료의 수요급증 등으로 평가했다.

반면 추석직후 부터는 난가하락이 불가피함을 지적하면서 9월 초순까지는 생산성이 낮은 계군을 각자 알아서 도태키로 하였다.

계란가격 고시에 대해서는 계란상인연합회가 최근들어 불이익을 주장하며 이 제도를 깨드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회와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에서 거래동향을 파악, 이를 참고로 값을 결정할 예정에 있다.

검정위원회 개최 제35회 육용계 최종성적 검토



8월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22일 안성에 위치한 닭능력검정소에서 신홍종 본회 회장을 비롯한 농림수산부 직원 등 13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5회 육용계 검정 최종성적 검토를 하는 한편, 제25회 및 26회 산란계검정 중간성적 검토, 종계 일반검정 심의 등이 있었다.

제35회 육용계 검정성적 검토 결과 출품 계군간의 차가 심하고 약병아리로 인해 봄가을 보다 체중이 미달됨을 보여줬다.

기타 토의사항에서는 경제성 분석에 대한 안이 있었고 부화율이 낮은데 대한 원인분석도 있었다.

수원분회 전화번호 변경

본회 수원분회(분회장 송상정)가 지난 8월 28일부로 전화번호를 (0331) 283-5468로 변경하였다.